



Heart to God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Hand to Man

구세공보

THE WAR CRY

<https://www.thesalvationarmy.or.kr>



2026.6

제1274호 | 창간 1909.7.1

이달의 말씀

평화를 간구하는 사람들

이달의 군국표어 실행 프로그램

2025 창립주일 리마인드

특별기고

캄보디아 사관 역량강화교육



이달에 생각한다

평화 · 화평 · 평안

내면에서 관계로, 관계에서 세상으로

‘평화’, ‘화평’, ‘평안’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깊이를 지닌다. 평화는 세상과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는 상태이며, 갈등이 멈추고 함께 살아가는 질서다. 그러나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화평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는 선택이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화평은 과정이며 사랑의 실천이다. 평안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요함이다. 이 세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고, 그 삶이 모여 평화를 만든다.

6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화평을 이루며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통해 화평으로 이어지고, 세상 속에 평화로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

표지설명 :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대의 빛처럼, 예수님의 진리는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이끍니다.

이달의 행사

6월
June

No Alcohol Day (6월 첫 번째 목요일)

13 (토) / 20 (토) 여름성경학교 프리뷰 1·2차

18 (목) ~ 19 (금) 사회복지 직원 세미나

22 (월) ~ 24 (수) 교육부 집행자 워크숍

29 (월) ~ 30 (화) 거버넌스 워크숍

여성사역부 캠프 / 가족캠프 (지방별)

Contents

이달의 말씀 **평화를 간구하는 사람들** | 03

칼럼 **상처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 06

삶으로 전하는 복음 **평범한 일상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 07

이달의 군국표어 실행 프로그램 **2025 창립자주일 리마인드** | 08

특별기고 **캄보디아 사관 역량강화교육** | 10

복음의 메아리 **경남지방 서진주영문** | 12

시설탐방 **구세군보건사업센터** | 14

간증 1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종의 고백** | 16

간증 2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변함없는 믿음의 길** | 17

다음세대의 신앙 **2026년 구세군 여름성경학교** | 18

구세군 역사이야기 **에이다 어윈 사관의 증언과 피난 기록** | 20

사회복음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 '일대일 결연후원'** | 22

문화칼럼 **구세공보의 미래** | 24

이달의 찬송 **찬송가 696장 '온 세상에 구세군 행진해'** | 25

The War Cry

2026년 6월 1일 제1274호
June 2026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발행

The Salvation Army Korea Territory

창립자 윌리엄 부스 발행인 김병운
대장 린든 버킹햄 편집인 유지선
사령관 김병운 인쇄인 김경환

주소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7, 16층
(충정로3가, 구세군빌딩)

전화 02)6364-4017 팩스 02)6364-4099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
(warcry@hanmail.net)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he Salvation Army International Headquarters
101 Queen Victoria Street, London EC4V 4EH
United Kingdom

종로 라-00001호(1960년 7월 1일) 1909년 7월 1일 창간 | 월간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요강을 준수한다.

구세군대한본영 <https://www.thesalvationarmy.or.kr>



평화를 간구하는 사람들



참령 박한서
천안영문 담임사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단 2:44)”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던 시절, 동독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교회에서는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서독 베를린의 겐세마네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정치적 통일을 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동독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교회는 비밀 경찰들의 감시와 억압 속에서도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했습니다. 그 촛불기도회는 지속되고 확장되어 거리로 확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위에 독일 통일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질문을 던집니다.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나라가 흔들리고, 사회가 갈라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성경은 그 질문 앞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평온한 시대를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조국은 바벨론에 짓밟혔고, 예루살렘은 수치를 당했으며, 하나님의 성전 기물은 이방 제국의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진 나라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세 나라의 현실을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에서 태어났고,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와 관료로 살았으며, 메대-바사(페르시아) 제국의 새 질서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왕을 보았습니다. 여호야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의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단 6:28)”

왕은 바뀌었고, 제국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힘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거대한 신상은 인간 제국의 영광과 흥망성쇠를 보여 주는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며 그 제국들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닐 것이지요(단 2:44)”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하고, 바벨론이 아무리 찬란해도,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제국은 흥하고 망하지만, 하나

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땅의 왕들은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니며, 영토 지배권이나 국경선으로 설명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말한 “나라”는 왕권과 통치,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통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며, 공동체가 온전함을 회복하는 평화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구한 것은 바벨론을 향한 맹목적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궁궐 안에 있으면서도 제국의 논리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서 살았지만,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절망의 시대에 분노만 품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망국의 시대에 체념만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시대에 출세만 추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고 하루 세 번 무릎 꿇어 기도하던 사람, 왕의 조서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를 더 사모했던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평온하게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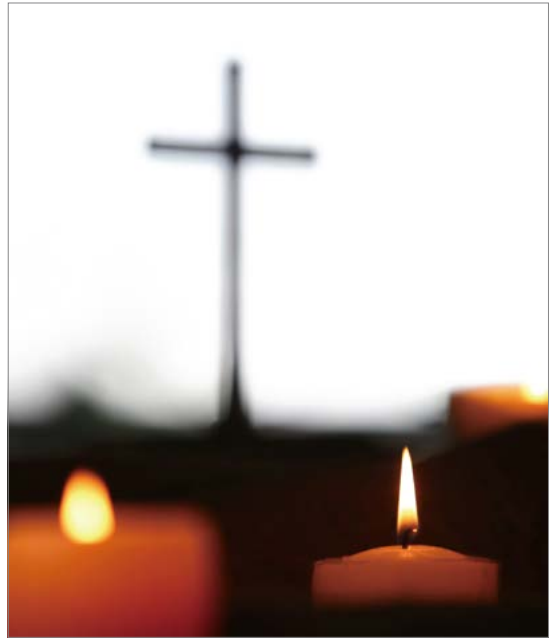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 민족의 정치적 회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나

라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질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땅의 나라가 무너지는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다니엘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가 세계 질서의 중심이었습니다. 파스 로마나(Pax Romana)는 ‘로마의 평화’를 뜻하며,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서기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사망까지 약 200년간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며 누린 번영과 안정의 황금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역시 쇠퇴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만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칼과 군대로 오신 왕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오신 왕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무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는 단순한 감정적 안정만이 아닙니다. 죄 사함에서 오는 평화이며, 화해에서 오는 평화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평화입니다.

오늘날에도 힘의 논리가 가득합니다. 군사력, 경제력, 특히 AI 기반의 힘이 세계 질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생태계 안에서 플랫폼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 나라를 지나며 살았지만, 오직 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섯 왕의 시대를 통과했지만, 한 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제국의 궁궐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어도 땅의 나라는 흔들립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을 지닌 왕들은 바뀝니다. AI 기반의 초강력 세계도, 그 어떠한 세력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질서 또한 변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평화를 빼앗아 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구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약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참령 최인영

대구철곡영문 목양담당사관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은 물론, 인류 역사 가운데 멸망했던 수많은 나라들도 모두 상처 위에 세워졌다. 세상의 나라는 전쟁과 침략,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세워졌다. 자신의 유익과 이기심, 권력욕과 명예욕으로 세워졌으며,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의 피와 상처가 그 토대에 배어 있다.

로마 제국과 중국의 수많은 왕조들,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일본 제국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며, 빼앗고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지금도 세상 나라들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상처 또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 인간을 위해 세워 주신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의 나라이다. 하나님 자신의 상처 위에 우리를 위해 세우신 나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구원의 시작으로 바꾸셨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와 절망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장 큰 사랑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의 몸에 남은 상처는 단순한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의 증거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친히 감당하셨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 하나님은 그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가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세워져 간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상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이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우리는 원망과 단절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믿음과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비밀을 고백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고후 12:9)”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는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이다. 우리가 그 약함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완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세워졌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온전한 도구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평범한 일상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삶으로 드러나는 진리



정위 정상혁
오산영문 담임사관

“나는 절대 교회에 안 다닐 겁니다.” 수년 전, 한 남성분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당시 이유를 묻자 그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변에서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배울 것이 없

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은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본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도 전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화려한 말보다 진정성 있는 삶이 먼저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통로’인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말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을 넘어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입에 담느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와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약 3:8~10). 내가 무심코 내뱉는 부정적인 말, 험담, 비난, 욕설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따뜻한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우리는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가?” 평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듣는 이의 마음을 열고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둘째,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실제 삶의 태도가 일치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정직을 말한다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말한다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따라야 합니다.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삶은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그리고 깊이 남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말 한마디, 작은 태도 하나를 통해 드러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진정성 있는 삶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창립자주일 리마인드 160주년의 감동, 오늘의 사명으로

선교국



올해 창립자주일을 맞이하며, 지난해 구세군 창립 16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영문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각 영문은 창립자의 정신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과 사명 속에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의미 있는 실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다.



나에게 회복되어야 할 창립자 정신은 무엇인가?

군포은혜영문

군포은혜영문은 '나에게 회복되어야 할 창립자 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군우들은 '구령의 열정·절제의 삶·성결의 영성·성령충만한 삶·실천적인 사회봉사'라는 다섯 가지 창립자 정신 가운데 오늘 자신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을 돌아보며 기도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160주년을 맞이한 구세군과 창립자에게 편지쓰기

마전영문

마전영문에서는 '160주년을 맞이한 구세군과 창립자에게 편지쓰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영문 군우들뿐 아니라 병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까지 함께 참여하여 구세군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담은 편지들을 남겼다. 다음 세대와 함께 이어가는 구세군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주일 성결회 '전 군우 군복 입기'

서울제일영문

서울제일영문은 창립자주일 성결회에 '전 군우 군복 입기'를 실시하고, 구세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새롭게 다졌다.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워진 'First Corps'로서 창립자의 희생과 열정의 정신을 다시 불드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창립자에게 편지쓰기

지산영문

지산영문은 창립자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를 향한 감사와 결단의 편지 쓰기를 진행하며, 그들의 신앙 유산과 희생의 정신을 되새겼다.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라”는 창립자의 열정을 이어가기 위해 ‘사랑의 명단’을 작성하고 홍보기도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창립 160주년 기념 환경장식

대전중앙영문

대전중앙영문은 창립 160주년을 기념하는 데코레이션을 통해 창립자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주일 성결회 근속장 수여식

대전소망영문

대전소망영문은 성결회 시간에 근속장 수여식을 진행하며, 오랜 시간 충성스럽게 걸어온 구세군 하사관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최초 하사관 임명 이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믿음과 사명으로 섬겨온 이들에게 근속장을 수여하며, 구세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헌신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이달의 군국표어 실행 프로그램

나는 구세군입니다

“나는 구세군입니다” 주제로 실시하는 올해 창립자주일 실행프로그램 ‘근속장 수여식’, ‘창립자주일 전시회 및 포토존’을 소개한다.

근속장 수여식

- 1 최초 하사관 임명일로부터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등으로 근속자를 선별한다.
- 2 근속하사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근속장 수여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다.
- 3 창립자 주일 성결회 시 근속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 4 수여식 후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 근속 하사관의 결단 및 소감을 나눈다.

창립자주일 전시회 및 포토존

- 1 창립자 사진 및 명언, 창립자의 사역 사례 등 구세군 역사적 자료를 준비한다.

- 2 구세군의 주요 역사적 발자취를 시간순으로 구성한 ‘타임라인 포토’를 전시한다.
- 3 창립자 스탠드 패널, 고전 구세군 유니폼, 자선냄비 모형, 브라스밴드 소품 등을 활용하여 포토존을 구성한다. (포토존 공간이 어려운 경우 포스터 전시 형식으로 대체 가능)

e구세군



자세한 내용과 활용 콘텐츠는 e-구세군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프놈펜의 뜨거웠던 4일

캄보디아 사관 역량강화교육

교육부

교육부(참령 신용혜)는 4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사관 역량강화 교육' 1년 차 2학기를 진행했다. 'Mission Support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한 이번 교육은 현지 사관 12명을 대상으로 사역 현장에서의 실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국경을 넘어 마음으로 맞닿은 시간

이번 교육에는 한세중 서기장관을 비롯해 강태석 인사국장, 김경희 부인사국장, 황선엽 역사박물관장, 인은영 사회정의위원회담당관 등 강사진이 참여하였고, 신용혜, 유지선, 김홍수, 김도현, 함소망 사관 등이 운영팀



영문사관 군령군율 강의



심도 있는 토론



강의 중 토론 발표

으로 합류해 토피바퀴 같은 호흡을 선보였다. 또한 소완 메따 사관과 춤 아룬 특무가 교육 참가자 겸 통역으로 강사진과 현지 사관들이 매끄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강사진과 스태프들은 강의뿐 아니라 전 일정에 걸쳐 현지 사관들과 교제하였고, 현지 사관들은 영문에서 재배한 과일을 가져와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등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였다.

실무와 영성의 완벽한 조화

- **핵심 커리큘럼** : 영문사관 군령군율부터 구세군 행정 절차, 그리고 실무 적용도가 높은 FBF 교육에 이르기 까지 이론과 실재를 균형 있게 반영하였다.
- **쌍방향 소통** : 일방적인 지식 전달은 지양했다. 사역 중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궁금증을 가감 없이 쏟아내고 토론하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고, 이는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논의로 이어졌다.
- **뜨거운 영성** : 매일 아침 강사진이 인도하는 기도회로 문을 열었다. 특히 현지 사관들이 직접 인도하는 찬양의 열기는 강의실을 영적인 은혜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다.



FBF 교육



아침기도회 찬양인도

다시 만날 날을 벌써 기다립니다

현장의 반응은 뜨겁다 못해 몽클했다. 한 사관은 “멀리서 찾아와 준 사랑에 감사한다. 큰 배움과 도전을 받았고, 동료 사관들 모두가 다음 만남을 벌써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교육은 캄보디아 사관들의 행정력과 사역 실행력을 한 단계 격상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라는 연대감을 단단히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강사진의 헌신적인 섬김은 현지 사관들에게 사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심어 주었다.

한편, 향후 사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후속 방안도 제시되었다. 정기적인 재방문 교육 및 현지 맞춤형 심화 과정 개발과 더불어, 캄보디아 사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훈련 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류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단기 프로그램을 넘어 캄보디아 사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자리가 되었다.



FBF 교육



서진주 영문 전경

경남지방 서진주영문

지역사회를 가꾸고 변화시키는 영문

생활 속 필요를 채우며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한 현장이야기

글 | 부위 임성은 경남지방 공보담당관



지역의 민원해결로 세워진 가로등

서진주영문은 1993년 8월 6일, 학생 참위 박석현·이정자의 부임과 함께 개척이 시작되었다. 같은 시기 진주영문 제1구역 소속 6가정이 개척원으로 파송되어 교회 설립의 기초를 이루었다. 개영예배는 1993년 8월 10일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졌으며, 당시 장희동 사령관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현재 담임사관으로 안상준·이혜영 사관이 사역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 1일에 제6대 담임사관으로 부임하며 새로운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같은 해 교회 가시성 확보를 위해 남선교회의 후원으로 입간판 3개를 설치하였다.

서진주영문의 사역은 지역사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해결하며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횡단보도 신설, 위험 지역 난간 설치 등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을 통해 지역 환경 개선에 집중하였다.



펜스 설치

초기에는 가로등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 관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각각 경찰서와 동사무소, 시청 등으로 관할이 나뉘어 있었으며, 도로 구간에 따라 도로공사까지 포함되는 복잡한 구조였다. 이에 전화, 방문, 인터넷 민원을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교회 주변 및 마을 입구의 조명 설치 및 보수, 터널 내 조명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교회 앞 도로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약 9개월간의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치가 완료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 현수막 설치를 요청하였다. 또한 위험 구간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 안전시설이 설치되며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졌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구역 예배 체계를 재정비하였다. 기존의 목요일 중심 예배에서 주일 오후 구역 예배로 전환하고, 구역을 나누어 구역장을 세움으로써 공동체성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교인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구역 중심의 돌봄과 교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다양한 봉사활동과 협력 활동을 이어갔다. 지속적인 봉사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교회와 교인들이 각종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는 공동체 안에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하

였다. 더불어 주차장 확장과 간판 설치 등 물리적 환경 개선도 병행하여 교회의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였다.

결론적으로 서진주영문의 사역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곧 영문의 사명”이라는 인식 아래 이루어졌다. 이는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행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꾸준한 실천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 더욱 확장되어 갈 것이다.



서진주영문의 예배



전도용품을 함께 준비하며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며



1999년 태국·필리핀 방문



에이즈 예방교육



노인 성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곁을 지키는 구세군보건사업센터

글 | 사회복지부



에이즈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답다. 구세군보건사업센터(참령 차봉수)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감염인과 비감염인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이루도록 돕는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구세군이 HIV 예방 사역을 시작한 것은 1995년 국제본부의 지원 아래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이며, 1998년 12월 1일 '한국 구세군 HIV/AIDS 대책팀'이 결성되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오늘날 구세군보건사업센터의 출발점이 되었고, 현재는 전국 7개 지방을 중심으로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과 감염인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HIV의 주요 감염 경로는 성관계이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신규 감염인의 상당수가 10~30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10~20대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는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구세군보건사업센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생명을 존중하는 성윤리와 책임 있는 삶의 가치를 함께 전하는 예방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년원, 청소년쉼터, 학교,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136회 교육을 통해 17,508명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38명의 전문 강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강사 양성과 보수교육, 강의 영상 분석 등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어르신 대상 '건강한 성, 백세시대 행복한 삶' 캠페인 역시 인식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역이다.

센터의 사역은 예방에 그치지 않고 감염인의 삶 전반을 돌보는 데까지 이어진다. 많은 감염인들은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가족 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센터는 정서적 지지와 생활 안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미 활동과 성경 공부, 정기 모임과 야유회, 생일 축하 등은 감염인들이 서로 연결되고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특히 월요 성경 공부와 예배 모임을 통해 신앙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의료비 지원과 밑반찬 나눔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상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트라우마,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 상담을 연계하고 있다. 매년 겨울에는 김장 김치를 나누고, 성탄축하회와 후원자의 날을 통해 감염인과 후원자가 함께 감사와 위로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연말 자선냄비 모금 기간에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그동안 도움을 받던 감염인들이 직접 모금 활동에 참여하며, 지원의 대상에서 이웃을 돕는 주체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사랑과 돌봄이 다시 나눔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다.



생명나무 야유회



월요모임

구세군보건사업센터는 오늘도 가장 낮은 곳,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아름다운 사회, 함께 사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세군의 보건사업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02-6364-4084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201-093384

(예금주 : 구세군보건사업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종의 고백

조한나 개운지역아동센터 직원



저는 구세군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평생을 영문 안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영문의 기둥 같은 직분을 맡으신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 자부심이자 동시에 넘기 힘든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단장의 자녀라는 수식어는 늘 저를 따라다녔고, 저는 남들의 시선에 맞춰 신실한 구세군 병사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보여 주기식 신앙이었습니다. 마음은 늘 세상의 즐거움을 갈망했고,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은 저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시험에 무너져 주님의 곁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자유일 줄 알았으나, 그 길은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듯, 저의 지난 삶 또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제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보려 애썼지만, 광야의 거친 바람과 갈증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저의 교만을 꺾으시고, 제가 붙들고 있던 '단장의 자녀'라는 자존심과 '내 능력'이라는 우상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30년의 완전한 방황을 끝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으셨음을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느꼈을 때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문으로 돌아온 후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중 부교 임명 제안을 받았지만, 저는 오랫동안 그 부르심을 거절해 왔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어머니의 헌신과 무게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엄마처럼 할 수 있을까? 나는 다른 부교님들처럼 온전하지 못하는데...'라는 자격지심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로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저를 개운지역아동센터라는 귀한 사역지로 인도하셨습니다. 가정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방황하던 저의 모습과 닮아 보였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

아이들이 너처럼 40년 광야 길을 방황하지 않도록, 네가 곁에서 복음으로 잘 도와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센터는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닌,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보듬고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영문의 첫발을 내디딘 지 40년, 이제야 비로소 저는 부교라는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늦은 임명 같지만,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때에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은 저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던 단장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이자 충성된 부교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걸어가신 헌신의 길을 저만의 색깔로 따르며 주님의 몸 된 영문을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센터의 아이들에게 제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과 사랑으로 증명하는 부교가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기다려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변함없는 믿음의 길

박희현 가정단장 덕암영문

초강영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저는 스물일곱 살에 덕암영문으로 시집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집안이라는 말만 믿고 온 시댁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물 사업을 하던 무뚝뚝한 남편과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형편 속에서, 저는 어린 자녀들을 업고 역전으로 장사를 나가야만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죄책감은 늘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당당함 대신 부끄러움이 앞섰고, 먹고사는 일에 매여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녹막염과 복막염으로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고 허를 내 돌렸고, 남편마저 모진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친정에서 안정을 취한 후 시댁으로 다시 돌아온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니, 언제 죽어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예수를 믿으니 교회에 다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고난과 질병,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찬송가 370장의 가사를 가슴에 품고 사관님과 군우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새벽마다 “이 못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

나님께서는 기도원에서 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에 사용하는 낚덩이를 달기 위해 군부대에서 가져온 탄피를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섞여 들어간 실탄이 폭발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눈앞에서 폭발이 일어났지만, 놀랍게도 저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처럼, 애통하며 이웃과 영혼들을 위해 울었던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수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 저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덕암영문의 가정단장으로 세워 주시고, 훌륭한 사관님들과 군우들의 사랑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제 믿음은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고난과 질병,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영문을 섬기며, 남을 위해 기도하는 지금이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2026년 구세군 여름성경학교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숨 (고후 5:17)

정위 이영섭 청년부장

올해도 여름성경학교 계절이 돌아왔다.

현장의 교사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성경학교에 참여하며, 학생들에게 소중한 신앙의 경험이 되고 교사들에게는 지난 신앙의 여정을 다시 떠올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현장의 동역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였다.

주제 포인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으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이다.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통치하려는 욕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망가뜨렸다. 그러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인간이 붙여넣은 모든 죄의 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위대한 새로운 숨(성령)을 불어 넣어 주신 위대한 복음의 사건을 다룬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는 현장을 기대한다.

성경학교 공과 활동 흐름

생명의 숨을 주셨어요(창 2:7)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면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숨으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다.

죽음의 숨을 마셨어요(롬 6:23) 인간은 뱀의 거짓말로 하나님을 불신함을 선택했고 불순종했다. 이로부터 죽음의 숨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세계와의 관계가 모두 단절되고 죽게 되었다.

새로운 숨을 주셨어요(요 19:17~30, 요 20:20~23)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생명의 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숨(성령)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새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숨(성령)을 쉬며 살아가게 된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군국 유스캠프의 주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숨(생명)이며,

죄악으로 오염되어 진정한 숨을 쉬지 못하는 우리의 숨을 새로운 숨(성령)으로 살아내야 함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여름성경학교 찬양

여름성경학교 주제에 맞추어 5곡을 준비했다. 주제곡은 '주님을 따라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제 말씀을 담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을 담고 있다. 그 외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New Creation(말씀 찬트)', 'The breath of Jesus'가 있다. 음악을 전공한 사관들과 하사관, 그리고 현장에서 울동으로 섬기는 팀이 기쁨으로 섬겼다. 매년 새로운 곡이 나오지만, 올해도 정성을 기울였다. 찬양과 울동은 군

국청년부 유튜브와 각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롭게 되었다. 여름성경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숨(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 주기를 기대하며 소망한다.

2026년 1차 여름성경학교 프리뷰

6월 13일(토)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2026년 2차 여름성경학교 프리뷰

6월 20일(토) 구세군백화산수련원



기획 구세군대한본영 청년부

공과 양보미, 정성희, 김수경 사관, 이지은 담임보

찬양작곡 및 편곡 신용혜, 박지영, 김건래 사관, 오찬규 청년
박수영 디렉터

찬양보컬 조아라, 김에스더, 박수영, 정시현, 신지안, 장주엘, 김조이

울동 및 제작 아현영문 에스더팀(김다은, 김소영 교사)
김사랑 청년(포항영문)

성경학교 콘텐츠 구현모, 김수경 사관

그림 박하은 작가

영상제작 커뮤니케이션스국 홍보부(심영재, 하헌상)



국군청년부  유튜브

6·25 전쟁을 목격한 에이다 어윈 사관의 증언과 피난 기록

선교사들의 긴박했던 탈출과 서울에 남은 허버트 로드 사령관

부정령 황선엽 구세군 역사박물관장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한국 사회뿐 아니라 당시 한국에서 사역하던 외국 선교사들과 구세군에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가운데 당시 한국구세군 군국본영 재무관이었던 에이다 J. 어윈(Ada J. Irwin, 캐나다) 사관은 전쟁 발발 직후 서울에서의 긴박한 상황과 피난 과정을 상세한 편지 형식의 기록으로 남겼다. 『The Australasian Journal of Salvation Army History』(2024)는 이를 다루며, 한국전쟁 초기 한국구세군의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1차 자료로서 주목하고 있다.

어윈 사관의 편지에 나타난 긴박한 피난 상황

어윈 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6월 25일 주일 아침만 해도 서울 제2영문(아현)에서는 로드 사령관(Herbert Lord)의 인도로 회개자를 위한 자비석이 가득 찰 만큼 평화로운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후부터 38선 전투 소식이 전해졌고, 밤이 되자 서울 시내에는 등화관제 명령이 내려졌다. 당시 외국 선교사들은 이미 여러 차례 국경 충돌을 경험했기에 처음에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개성 함락 소식과 함께 서울 북방까지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급격히 긴박해졌다.



Irwin 사관의 모습과 성경을 되찾은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한 캐나다 구세군 아카이브 잡지(The Crest)의 기사내용 (2022년 겨울호 23권 1호)

미국대사관, 미국인·영국인 철수 명령 내리

자정 무렵 미국대사관은 여성과 어린이, 미혼 여성 선교사들에게 즉시 철수 명령을 내렸다. 어윈 사관은 감리교 선교사 숙소인 그레이 하우스(Grey House)에서 급히 짐을 꾸렸다고 기록했다. “들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지침 속에서 선교사들은 평생 사역해 온 현장을 뒤로한 채 피난 준비를 해야 했다.

당시 한국구세군 허버트 로드 사령관은 며칠 전 새 집으로 이사한 상태였으며, 아직 전기조차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새벽 3시경, 어윈 사관이 직접 사령관 사택을 찾아가 여성 철수 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렸고, 이후 로드 사령관은 부인 마가렛 로드(Margaret Lord)와 함께 상황을 논의하였다. 영국 영사는 “떠날지 여부는 본인들의 결정”이라고 했으나, 결국 미국 측은 로드 부인과 어윈 사관에게 반드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황종울 정령, 전시 긴급 임관 임명식 인도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증언 하나가 등장한

다. 기존 한국구세군 역사에서는 6·25 전쟁 직전 제34기 표준사관학교 사관학생들의 긴급 임관과 파송을 허버트 로드 사령관이 직접 인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어윈 사관의 기록에 따르면, 전쟁 발발로 예정된 임관식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고, “사관생도들은 서기장관(C.S.)에 의해 임관을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황종울 서기장관이 긴급 임관과 파송을 실제로 인도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증언으로 평가된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한국인 사관들은 각 지역 임지로 급히 흩어져 사역지로 떠나야 했다.

선교사들, 미군 수송기로 일본 피난

6월 27일 밤, 어윈 사관과 로드 사령관 부인, 그리고 영동병원 간호사 밀드레드 스톤(Mildred Stone) 정위는 미국대사관으로 이동했고, 새벽에는 버스를 타고 김포 비행장으로 향했다. 활주로에서는 각자 짐을 직접 들고 줄지어 서 있어야 했으며, 북한군 전투기가 상공에 나타나 급히 몸을 숨겨야 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미군 수송기들은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차례로 착륙과 이륙을 반복하며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을 일본으로 긴급 공수하였다.

어윈 사관은 당시 미군의 피난 작전에 대해 “차갑고 기계적인 철수가 아니라, 사람을 배려한 친절한 구조였다”고 기록하며 깊은 감사를 표현하였다. 그녀는 일본 후쿠오카와 도쿄를 거쳐 피난 생활을 이어 가면서도 계속 한국 소식을 기다렸고, “언젠가 서울이 회복되면 다시 돌아가 흩어진 사역을 재건해야 한다”고 적었다.

허버트 로드 사령관 철수 거부 후 납북되어 ‘죽음의 행진’

반면 허버트 로드 사령관은 끝까지 서울에 남았다. 그는 “내가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이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철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후 서울에 진입한 북한군에 의해 체포되어, 다른 외국 선교사들과 함께 북으로 끌려갔다. 이후 그는 압록강 중강진까지 이어진 이른바 ‘죽음의 행진(Death March)’을 견디며 약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1930년대 본영 찬양대. 앞줄 좌측에서 두 번째가 어윈 사관

로드 사령관은 훗날 자신의 포로 경험을 회고하며 “걸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총살당했고, 나는 수많은 사망 증명서에 서명해야 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포로수용소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동료 포로들을 위로하며 신앙을 지켰다. 1953년 포로 교환으로 석방된 후 그는 영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남아프리카 사령관과 국제순회 사역으로 계속 섬겼다.

전쟁 속에서 다시 돌아온 성경 한 권

어윈 사관은 갑작스러운 피난 과정에서 자신의 성경책을 남겨 둔 채 떠나야 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서울 미8군 군악대에서 일하던 제임스 루드비히(James Ludwig)라는 청년이 그 성경을 발견하여, 미국으로 돌아간 그녀의 주소를 수소문한 끝에 1954년 다시 보내 주었다. 이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신앙과 인간애가 이어 준 감동적인 ‘Lost and Found’ 이야기로 남아 있다.

에이다 어윈 사관의 편지는 단순한 피난 기록을 넘어, 6·25 전쟁 초기 한국구세군과 선교사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이다. 특히 긴급 임관을 실제로 인도한 인물이 황종울 서기장관이었던다는 증언, 로드 사령관 부인의 피난 과정, 김포비행장에서의 긴박한 탈출 장면 등은 당시의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해 준다. 이러한 기록들은 한국구세군 역사 속 전쟁과 희생,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 “일대일 결연후원”

참령 최정미 후원자부담담당관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만끽하기도 전에 더위가 찾아온 듯하다. 봄 햇살이 아쉬운 까닭은 그것을 누릴 틈 없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버리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만남은 짧고 기다림은 길기에!

지난 3월 후원자부로 택배 한 상자가 도착했다. 얼마 전 결연 아동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다고 연락했던 한 후원자가 보낸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후원자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결연 아동을 생각하며 고르고 골랐을 선물들이다.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색을 좋아할까? 선물을 고르는 내내 아동을 생각했을 후원자를 떠올리니 그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또한 SNS가 대중화된 세상에서 정성이 담긴 손 편지는 아동에게 선물만큼이나 큰 기쁨과 감동을 줄 것이다.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편지를 통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은

또한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연 후원자들은 후원금 외에도 가끔씩 아동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직접 고른 선물을 후원자부에 보내곤 한다. 정기 후원금은 아동의 통장에 입금되어 교육비나 의료비 등에 사용되며, 아동의 자립준비금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기 후원이 아동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물질적 지원이라면, 아동에게 보내는 선물과 손 편지는 정서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선물은 물질이지만 주는 사람은 그 안에 마음을 담는다. 그래서 받는 사람 또한 그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선물을 받은 아동들 또한 후원자에게 직접 쓴 손 편지로 감사를 표현한다. 이렇게 후원자와 결연 아동과의 소통은 물질적 지원을 넘어 마음이 통하는 정서적 지원으로까지 이어지며 이것의 효과는 수혜 아동뿐 아니라 후원자의 삶도 변화시킨다.



캄보디아 결연아동 선물나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5)”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나눔의 기쁨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나눌수록 가치는 더욱 커지고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통해 나눔의 향기는 퍼져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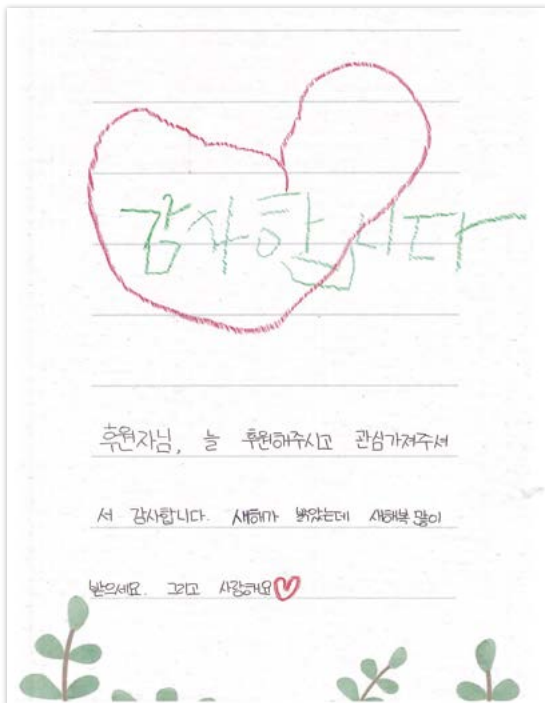
선물받은 신발을 신고 즐거워하는 결연 아동



후원자가 보내 온 아동 선물

한 번 뿐이기에 더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에!

후원자는 단순히 물질만 베푸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사이다. 사람을 살리는 구세군의 후원자가 더욱 많아져서 등경 위에 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구세군이 되기를 소망한다.



후원자에게 보내는 감사편지

문화를 읽고(Reader),
문화를 이끄는(Leader) 문화 리더 3

구세공보의 미래 적자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참령 신용혜
교육부장

현대 사회는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시대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적자'는 적는 것, 곧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정보를 많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남기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물결은 모든 매체를 재편하고 있으며, 종교 매체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과거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소통 창구였던 종이 매체는 이제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에 그 자리를 빠르게 내어주고 있다.

구세공보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정보 소비 방식은 디지털 중심으로 이동했고, 종이 매체의 접근성과 속도는 상대적으로 뒤처진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모바일을 통해 신앙 콘텐츠를 접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구세공보의 본질이 빛난다. 구세공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느리지 않고 느긋한 매체'이다. 빠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빠를 필요가 없기에 여유를 선택하는 매체다. 수많은 정보가 스쳐 지나가는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남는 것'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남는 것은 결국 기록이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구세공보는 '월간 구세군'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구세공보는 빠른



5월
구세공보
표지

정보의 경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달을 살아낸 신앙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차분히 기록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기록은 소비되지 않고 축적된다. 한 번 읽고 사라지는 정보와 달리, 기록은 반복해서 읽히며 삶 속에 스며든다. 구세공보는 바로 이 기록의 힘을 가진 매체다. 종이 위에 남겨진 신앙의 고백과 이야기, 말씀의 묵상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꺼내 읽을 수 있는 영적 자산이 된다. 따라서 구세공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지'를 넘어 '기록의 매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지면에서는 깊이 있는 해설과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고, 온라인에서는 빠른 소식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기록'이 있어야 한다. 영문과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 신앙의 여정, 작지만 진실한 고백들이 기록될 때 구세공보는 공동체의 살아 있는 역사서가 된다. 구세공보는 이러한 기록이 쌓여 가는 '신앙의 아카이브(archive)'가 되어야 한다.

구세공보가 빠르게 휩쓸리지 않고 시대와 호흡하며, 신앙의 깊이를 차분히 기록해 나갈 때, 오히려 더 오래, 더 의미 있게 살아남는 매체가 될 것이다.

84 찬송가 696장



온 세상에 구세군 행진해

All Round the World



정위 최관현
마포영문 담임사관

이번에 소개할 찬양은 구세군가 696장 “온 세상에 구세군 행진해(All Round the World)”이다. 작사자 윌리엄 피어슨(William J. Pearson, 1832~1892)은 구세군 초기 찬송 작사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의 메시지를 담은 찬송을 많

이 남긴 구세군의 음악가이다.

이 곡은 미국 흑인 영가(Negro Spiritual)인 “Poor Old Joe”의 선율을 사용하여 회중이 자연스럽게 찬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곡으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세군의 사명을 담은 행진 찬송이다. 특히 “혈화가 휘날리며”, “군기를 높이세”와 같은 가사를 통해 구세군의 구령 열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곡은 4/4박자의 갖춘마디로 시작하며, 조성은 D장조(D major)이고 템포는 보통으로(Moderato) 진행된다. 규칙적인 리듬과 반복적인 선율 구조를 사용하여 회중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행진곡과 같은 힘찬 분위기를 통해 구세군의 거리 전도와 야외 집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던 곡이기도 하다.

이 곡의 하이라이트는 후렴이다.

“날리세 날리세 혈화가 높이어, 온 세계 향해 구세군기 날리세”

온 세상에 구세군 행진해 696

군가 51
William J. Pearson(1832-1892) 모란 부가령 가제교 안영길 작곡 (8상 12:33) POOR OLD JOE Negro Spiritual

보통으로

1. 온 세상에 구세군 행진해 온 세계의 영혼 구원하네
2. 온 세상에 군기를 부르며 온 세계로 힘차게 나가세
3. 온 세상에 풍성한 은혜로 온 세계에 가득 채우세

구세군 병용 땀을 떨치며 혈화가 휘날리며 앞서 나가세
모든 죄의 사슬을 풀-며 예수를 위하여 군기를 높이세
온 세계의 죄인을 구하려 혈화의 정신으로 군기 날리세

후렴
날 리 세 날 리 세 혈 화 기 높이 어
온 세 계 향 해 구 세 군 기 날 리 세

All round the world 전도와 교훈

음역이 상승하며 선율의 흐름이 더욱 힘차게 전개되면서 곡의 절정을 이룬다. 이를 통해 구세군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열정이 자연스럽게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 구세군의 정신은 단순히 찬송을 부르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데 있다.

구세군가 696장 “온 세상에 구세군 행진해(All Round the World)”를 찬양하며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구세군인이 되기를 바란다.

* 음원은 미국 흑인 영가(Negro Spiritual)인 “Poor Old Joe”의 선율

PUZZLE

제370회
십자말 풀이

출제 : 정구의 사관(정위, 서울지방 서울제일영문 부담임)

10			1				11
2							
			3				12
		13					
	4		14				15
5							6
	7			16			
8				9			

- **보내실곳** :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16층 구세군 편집부
- **상 품** : 믿음상(1명) 도서문화상품권 30,000원
소망상(2명) 도서문화상품권 20,000원
사랑상(5명) 도서문화상품권 10,000원
- **마 감** : 2026년 6월 30일
- **해답 및 당첨자 발표** : 구세공보 2026년 8월호



십자말풀이를 이메일로 응모할 경우 warcry@hanmail.net으로 전송하되 답안을 기록하여 반드시 사진파일 또는 스캔파일로 첨부하고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로풀이

- 000 00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사 16:5)
-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0 00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 8:3)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재건축 기간 동안 본부는 000 00 칼리자로 임시 이전하였다. (2026년 4월 구세공보 21페이지)
- 유월절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의 절기를 삼아 000 00로 대대로 지킬지니라(출 12:14)"
- 에덴동산에서 발원하는 두 번째 강 (창 2:13)
-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00하시며 자기의 농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신 32:10)
- 율법교사가 자기를 드러내려 예수께 누가 내 이웃이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었다. '선한 0000인의 비유' (눅 10:30~36)
-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이다 그의 성호를 00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대상 16:8~10)
- 사울 왕의 아들이자 요나단의 동생 (삼상 14:49)

세로풀이

- 50일 전도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국표어 실행 프로그램 "0000 끌어올려"를 소개한다. (2026년 4월 구세공보 10페이지)
- 0000이 승리의 사건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날은 명백한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2026년 4월 구세공보 4페이지)
- 스바냐의 경고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저지대로서, 상업으로 이름이 난 지역 (슌 1:11)
- 성경은 00를 '사랑하라'함이 아닌, '공경하라'고 합니다. 감정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공경(恭敬)함, 즉, 공손히 낮아져, 존중과 존경을 다한 태도로 실천하려는 권면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 20:12)
-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00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약 5:15)
-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0 00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 10:16)
- 눈의 아들, 모세의 후계자 (민 11:28)
- 아셀 지파의 자손인 헬렘의 아들 (대상 7:35)

368회 정답

가로정답 1. 신의 궤 2. 사십주야 3. 고페르 4. 브가히야 5. 비돔 6. 샷뎀 7. 사도행전 8. 로데 9. 삼마 10. 빌하 11. 게르손

세로정답 1. 신앙고백 7. 사데 8. 로마 9. 삼손 12. 십자가 13. 야스야 14. 르비뎀 15. 행동하는 16. 간다게

368회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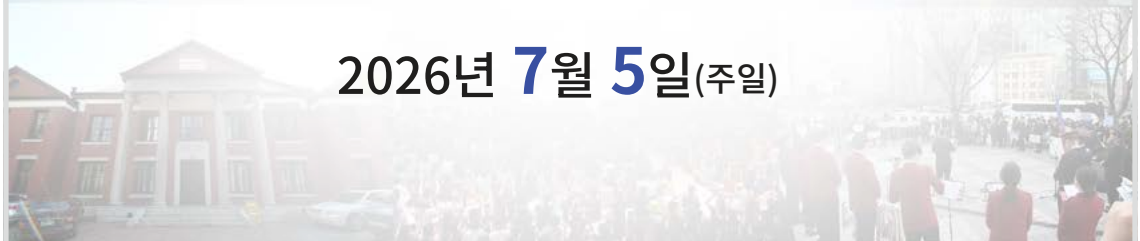
믿음상 이혜인 대전시 동구
소망상 강루시아 광주시 남구 이경순 충북 충주시
사랑상 고순옥 충남 예산군 이선자 전남 목포시
정교용 경기 고양시 정미연 경기 부천시
홍춘자 대전 동구



2026 FOUNDERS' DAY **161TH**

2026 창립자주일

2026년 7월 5일(주일)



구세군 후원자부 신규 결연 후원 이벤트

구세군 후원자부에서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교육비, 생활비, 자립 준비금에 사용됩니다.

지금 후원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특별한 감사의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추첨 안내

추첨인원 : 5명

추첨선물 : 구세군 자선냄비 미니어처

이벤트일 : 2026년 7월 31일까지



참여방법

- 1 포스터 내 QR코드 인식
- 2 해외아동 1:1 결연 (몽골, 캄보디아)
3만원 이상 후원 신청
- 3 가입 한마디에 '이벤트 참여' 문구 기입



여러분 가까이 구세군이 있습니다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에 의해 1865년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기독교 교단이며 현재 전 세계 134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라는 슬로건 아래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구세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s://www.thesalvationarmy.or.kr>



구세군 활동과 국내소식
<https://zrr.kr/qFBT8b>